

종합·해설

# ‘安風’ 여전히 거세다

## 서울지역 유권자 대상 대권 가상대결 안, 박근혜에 7.2~12.4%p 차로 앞서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의 바람이 여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연합뉴스와 한국정치조사협회가 지난 20~22일 서울 동안 서울지역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차기 대선에서의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와 범야권 안철수 단일후보의 가상 대결 결과, 안 후보가 박 전 대표를 7.2~12.4% 포인트 차로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적으로 최대 표밭으로 꼽히는 서울에서 ‘안풍(安風·안철수 바람)’이 여전히 위력을 떨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번 여론조사는 유선전화 면접, 휴대전화 면접, 유선전화 IVR(자동응답조사), 휴대전화 IVR, 온라인 등 5개 방식으로 샘플 규모를 달리해 진행했으며, 어떤 방식이든 안 원장이 우위를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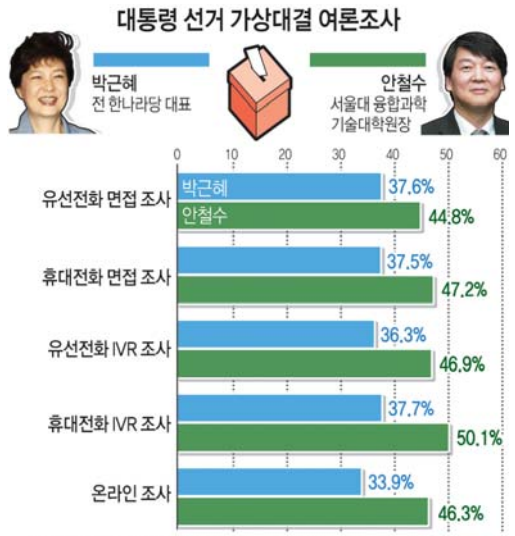
우선, 안 원장은 7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유선전화 면접방식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7%p)에서 44.8%를 기록해 37.6%의 박 전 대표를 오차범위 내에서 앞섰다. 두 후보의 지지율 차는 7.2%포인트다.

하지만 안 원장은 나머지 4개 방식의 여론조사에서는 모두 오차범위를 넘어서는 우위를 점했다.

500명을 대상으로 한 휴대전화 면접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4.4%p)에선 안 원장 47.2%, 박 전 대표 37.5%로 안 원장이 9.7%p 앞섰다. 각각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유선전화 IVR 조사와 휴대전화 IVR(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p)에서 안 원장은 박 전 대표를 10%p 이상 앞섰다.

유선전화 IVR 방식 조사에서 안 원장은 46.9%, 박 전 대표는 36.3%를 기록했다. 휴대전화 IVR 방식 조사에서 안 원장이 50% 벽을 넘어 50.1%



지난 20일부터 22일까지 서울지역 유권자 총 3천700명 대상으로 조사  
유선전화 면접(700명), 유선전화 자동응답(IVR)기종(ARS) 개별·1천명, 휴대전화 면접(500명), 휴대전화 자동응답(1천명), 온라인(500명)

자료/ 연합뉴스, 한국정치조사협회(12개 여론조사기관 모임)

를 기록, 37.7%에 그친 박 전 대표와 큰 격차(12.4%p)를 보였다.

온라인 여론조사(500명 대상)에서도 안 원장 46.3%, 박 전 대표 33.9%로, 12.4%p의 지지도 차이를 보였다.

이 같은 결과는 안 원장의 대선 불출마 입장에 불구하고 국민적 기대가 여전한 점을 반영한 것은 물론

차기 대선을 앞두고 ‘박근혜 대세론’이 굳어질 수 있다는 점을 나타내고 있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정치권에선 이번 조사가 서울에 국한된 점에 비해 전국적인 지지도와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박 전 대표가 영남권에 상당한 강세를 보이는 등 전국적인 인지도 및 지지도에서 앞서간다는 게 중론이어서 여론조사 범위를 전국으로 확대할 경우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이다. 여론조사 기관들은 ‘박근혜 대세론’이 대선 때까지 지속될 가능성이 그만큼 낮아졌다는 평가도 내놓고 있다.

정치권 관계자는 “이번 여론조사 결과는 아직까지 ‘안풍’이 살아있다는 반증이며 이는 차기 총선 등을 앞두고 야권대통합 및 야권 연대 결과에 따라 차기 대권 구도를 뒤흔들 수 있는 폭발성을 보일 수 있다”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 민주 ‘MB측근 권력형 비리’ 총공세

## 당내 특위 위원장 선임 박주선 최고 “대통령 결단 필요”



당내 특위 위원장 선임 박주선 최고 “대통령 결단 필요”

민주당은 이명박 대통령 측근들의 각종 비리 의혹을 ‘권력형 측근비리’로 규정하며 당내 특위 구성에 나서는 등 총공세를 펼치고 있다.

특히, 민주당은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김두우 전 청와대 홍보수석의 검찰 수사에 이어 신재민 전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의 비리 의혹까지 더해져야 여론을 압박할 호재로 보고 사실상 전면전에 나서고 있다.

손학규 대표의 지난 23일 최고위원회에서 “청와대 측근이 생각할 수

없는 거액의 돈을 받고, 더군다나 대선 당시 현 정권 캠프에 흘러갔다는 의혹이 있어 충격적”이라며 “검찰은 정말로 주저없이, 성역없이 수사에 착수해줄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세균 최고위원은 “대통령은 비리가 없어 레임덕이 없다고 했지만 일이 열개라도 할 말이 없게 됐다”며 “겉으로는 깨끗한 척 했지만 뒤에서는 정권 내내 썩은 냄새가 진동하는 표리부동한 모습을 보였다”고 맹비난했다.

특히,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인 박영선 의원은 지난달 8일 실시된 권재진 법무부 장관 내정자 인사청문회 열흘 전 이국철 SLS그룹 회장이 찾아온 사실을 공개했다. 박 후보 측 김형주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당시

이 회장은 MB정권 핵심 측근들의 뇌물수수 등 부패의혹을 입증할 만한 실제자료를 갖고 왔었다”며 “MB정권의 친위세력으로부터 당한 억울한 사연을 털어놓으면서 자신을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전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이명박 정부 권력형 비리 진상조사 특별위원회’(이하 특위)를 구성해 진상조사를 하기로 하고, 위원장에 박주선 최고위원을 선임했다. 박 최고위원은 “최측근 비리수사에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하다”며 “이번 문재 법무부 장관 내정자 인사청문회 열흘 전 이국철 SLS그룹 회장이 찾아온 사실을 공개했다. 박 후보 측 김형주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당시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 檢, 신재민 前차관 곧 소환할듯

서울중앙지법 특수3부(심재부 담당장)는 신재민(53)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에게 10년 동안 10억원이 넘는 금품을 건넸다고 주장한 이국철(49) SLS그룹 회장을 23일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오후 2시30분이 회장을 참고인 자격으로 서울중앙지법 49호 법정에서 서종훈 서울경찰청 차장에 불려 이 회장이 신 전 차관을 포함한 현 정권 실제 인사들에게 금품과 향응을 제공했다고 주장한 경위와 신빙성, 증거자료 유무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SLS조선을 비롯해 SLS그룹 계열사가 워크아웃을 받게 되는 과정에서 산업은행 등 관계기관이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에 대해서도 조사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SLS조선 등의 위

크아웃 과정 등에 대한 조사를 위해 이 회장을 불렀다”며 “신 전 차관 관련 건에 대한 조사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검찰이 폭로 의혹이 본격적으로 불거진 지 하루 만에 당사자인 이국철 회장을 전격 소환했다는 점에서 신 전 차관에 대한 금품제공 등 제반 의혹에 대한 수사에 정식으로 착수한 것으로 해석된다.

또 박영준(51) 전 지식경제부 제2차관이 일본 출장을 갔을 때 SLS그룹 일본 현지법인에서 400만~500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했다고 폭로했으며, 2008년 추석과 2009년 설 연휴를 앞두고 신 전 차관을 통해 청와대 K비서관과 L행정관에게 500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전달했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 김두우 전 수석 영장청구 부산저축銀 앞선수재 혐의

저축은행 비리 사건을 수사 중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최재경 검사장)는 23일 부산저축은행그룹 측로 비스트 박태규(71·구속기소)씨로부터 구명 청탁과 함께 역대 금품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앞선수재)로 김두우(54) 전 청와대 홍보수석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전 수석은 청와대 기획관리실장으로 재직하던 지난해 박씨로부터 부산저축은행그룹 구명 청탁과 함께 상품권, 골프채 등 1억원 안팎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는 27일 오전 10시30분 이숙연 영장전담관사 심리관 김 전 수석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구속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 정가 라운지

## 정몽준 “서울시장 보선 여당 유리”



한나라당 나경원 의원과 민주당 후보가 대결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그는 ‘안철수 신드롬’에 대해서는 “안 교수에 대한 평가가 아니고 한나라당에 대한 평가라 생각한다. (한나라당이) 집권여당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대선 출마 의지를 거듭 밝힌 그는 현 정권의 호남 소외론과 관련해서는 “이명박 정권이 호남을 소외시킨 것은 아닌데 시민들에게 그런 인상을 주고 있다면 집권여당의 잘못”이라고 설명했다.

## 장병완 “생활체육 안전사고 급증”

민주당 장병완(광주 남구) 의원은 25일 “최근 생활체육 동호회가 전국적으로 급증하면서 생활체육 안전사고로 지난해만 9명이 숨지고, 2173명이 부상당한 것으로 조사됐다”라며 “국민생활체육회는 대책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민생활체육회가 민주당 장병완(광주 남구)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생활체육 안전사고 발생 건수가 2006년 1795건에서 지난해 2553건으로 142% 증가했다. 이 기간 중 사망자는 ▲2006년 5명 ▲2007년 6명 ▲2008년 7명 ▲2009

## 김정업 한나라 시당위원장 취임

신임 김정업 한나라당 광주시당위원장이 23일 오후 광주 북구 중흥동 한국시멘트 2층 강당에서 당원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취임식을 갖고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취임사를 통해 “지금 광주 시당에 가장 필요한 것은 당원들의 화합”이라며 “시당 구성원들 간 화합을 통한 신뢰회복을 통해 건전한 광주시당 건설에 모든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그동안 집권 여당이면서도 소홀할 수밖에 없었던 광주시민의 교육과 일자리·복지·노후 준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맞춤형 복지정책도 착실히 준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 노회찬·심상정 고문 탈당 “진보대통합 매진”

진보신당의 창당에 앞장섰던 노회찬·심상정 상임고문이 지난 23일 진보대통합을 위해 탈당을 선언했다.

노 상임고문은 이날 배포한 탈당 선언문에서 “꺼져가는 진보대통합의 불씨를 되살리기 위해 부득이 탈당하고자 한다”며 “제대로 된 진보정당에서 다시 만날 날을 기약한다”고 밝혔다.

심 상임고문은 “현재의 진보신당을 통해 진보정치의 희망을 개척하는데

한계에 봉착했음을 고통스럽지만 정직하게 고백한다”며 “국민의 기대와 요구에 부응하는 새로운 진보정치의 길로 매진하겠다”고 다짐했다.

두 상임고문은 민주당과의 통합을 주장해온 통합파로 분류된다. 같은 통합파인 진보신당 조소승 의원은 당분간 탈당을 유보했다.

조 의원은 “두 상임위원과 생각이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민노-국참 합당 좌절

민노노동당과 국민참여당의 합당이 25일 사실상 좌절됐다.

민노당은 이날 서울 성북구민회관에서 대의원대회를 열어 ‘참여당과의 통합안’을 표결에 부쳤으나 재석 대의원 787명 중 510명이 찬성, 3분의 2(525명)를 넘지 못해 부결됐다.

이에 따라 민노당과 참여당의 통합 작업은 중단되고 민노당과 진보신당의 통합과 간 통합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박지경기자 jkpark@

## 남성 성기능강화제

본제품은 왕라, 복분자, 구기자, 갈근 등 20여가지의 한약재로 제조하였으며, 특히 왕라는 허브의 일종으로 자양강장역할을 하여 다미아나 혈관과 호르몬계의 도움이 된다. 단백질을 저장하는 힘을 돕고 근육을 강하게 해준다는 뮤쿠나프리언스를 주성분으로 하여 원활히 공급함으로써 당신의 자존심을 지켜줍니다.

**섭취방법 및 제품특성**

- 평소에도 발기는 되나 지속성이 없거나 조루가 있는 분들은 성관계 전 약 2-3시간전에 1정을 섭취하면 1-5일까지도 지속할 수 있습니다.
- 발기가 현저하게 떨어지는 분들은 1일 1정을 3-7일 정도를 연속으로 섭취하시면 발기가 잘됩니다.

설명이 필요없습니다. 직접 드셔보시고 확인하세요.

문의 전화 **010-7705-2535** 주문즉시택배 무료배송

## 부실채권(못 받은 돈) 회수대행전문

대여금·거래대금  
개인차용금·공증·판결문  
각종 못 받은 돈

- 선수금 없음, 후불제(착수금) (법비용은 채권자 부담)
- 수수료(회수 금액의 30% 이내)
- 재산조사, 신용조사가능

● 텔레마케터 수시모집(여) (아르바이트·시간제 가능·연령 무관)

● 추심직, 계약상담직원 (광주·전남·전북 센터장 모집)

소중한 재산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새한신용정보|주|  
062-232-7770, 010-4608-6061 (담당:김정수)

## 옥상·외벽·내벽·주택 방수 전문 방수

기술 필요없이 누구나 직접 방수를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쉽게 붓이나 롤러로 직접 칠해주세요”

- 옥상 지붕이 새는 건물
- 외벽, 내벽, 지하실, 화장실
- 바닥이 오래되어 모래가 일어나는 옥상 및 바닥
- 장미철 누수 및 습기찬 곳
- 옥상방수 하자에 지치신 분
- 낡은 옥상을 새 옥상으로 만들어 줍니다.

- 가격이 저렴하여, 시공면을 깨끗이 물 청소하시고 로리로 직접 칠해 주세요.  
- 고침투성, 무공해 무독성 제품으로 건물의 수명을 연장시켜 줍니다.  
- 물이나 습기가 있는 곳도 공사할 수 있습니다.  
- 한번 시공으로 반영구적이다.

역사와 전통의 미화표 를 꼭 확인하세요...

품질경영시스템인증 9001, 2001인증  
ENG, 이앤지 방수, 바릭재 전문생산업체  
**이앤지 방수** 062-367-7755  
광주광역시 서구 농성동 660-29